

언어 영역



정답

1. ⑤	2. ⑤	3. ①	4. ④	5. ②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③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①	24. ③	25. ④
26. ①	27. ②	28. ③	29. ④	30. ①
31. ①	32. ③	33. ①	34. ①	35. ③
36. ④	37. ③	38. ⑤	39. ③	40. ④
41. ④	42. ⑤	43. ①	44. ④	45. ⑤
46. ②	47. ②	48. ⑤	49. ⑤	50. ②

해설

듣는 내용은 www.uway.com 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기·말하기 <<<<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꿈 이야기 하날 들려 드리겠습니다. 전 꿈속에서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 호기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전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물건을 파느냐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전 무엇을 사야 할까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랑, 부귀 그리고 지혜하고 건강도 사고 싶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지금 바로 살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한번 잘 보게나.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

● 이야기의 교훈 추리

(정답) ⑤

화자와 노인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의 교훈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이야기의

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야기에서 화자는 '사랑, 부귀, 지혜, 건강' 등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노인에게 말한다. 그에 대해 노인은 자신이 파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야기의 핵심은, 화자가 원하는 것은 '다 익은 열매'이며,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잘 가꾸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이번 동아리 음악 감상회는 드뷔시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드뷔시의 음악은 아무리 들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 정말 드뷔시의 음악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체계적인 음악을 선호하던 당시 경향에 비한다면 뭐랄까, 실체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드뷔시도 처음에는 그 당시 음악의 흐름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뭐,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나 할까?

남자: 그래도 맺고 끊는 게 있어야 이해하기 쉬운 텐데, 그의 음악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랄까, 좀 몽롱하다고나 할까?

여자: 맞아요. 드뷔시 음악의 성격을 제대로 보셨네요. 드뷔시는 화성을 색채로 보았어요. 음악적 분위기로 만들어 내는 빛이랄까? 당시 독일의 음악가들은 화성을 철학이나 한 편의 희곡처럼 생각했대요. 선율을 고조시키고 이완시켜 줄거리를 부여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 주고 싶었나 봐요.

남자: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 음악이 꼭 주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문장이 될 필요는 없겠지요. 전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 내려는 그의 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어 보세요. 짧은 곡이지만 드뷔시 음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곡가 블레즈가 현대 음악은 이 곡으로 깨어났다고 한 바로 그 곡이죠.

●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를 대화 내용에서 찾아내는 문제이다. 먼저 문제를 보면, 음악 감상회를 알리는 포스터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을 찾는 형식이다. 형식이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드뷔시의 음악'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로 '여자'의 대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대화에서 여자는 드뷔시의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답아 내려는 시도'에 대해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두 번째 대화에서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 주고 싶었나 보다.'라고 함으로써, 드뷔시가 옛 틀을 벗어 버리고 자유로움을 추구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 ①, ② 여자의 두 번째 대화 내용에서, 당시 독일의 음악가들이 선율을 고조시키고 이완시켜 줄거리를 부여하는 식으로 화성을 철학이나 희곡처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여자의 첫 번째 대화와 남자의 두 번째 대화 내용에서, 드뷔시 음악이 맺고 끊는 게 없고 전통에 대한 도전을 보여 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햇빛이 하늘에 비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일조란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빛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두운 밤일 때, 지구 반대편 저쪽을 태양이 비추고 있겠죠? 그 햇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에 비치는 게 바로 대일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일조 현상의 비밀을 밝혀 준 건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입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의 먼지가 대일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하는 거죠. 산란이란, 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인 건 알고 계시죠? 산란되는 빛 중에서도 빛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이 가장 강하답니다. 바로 이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일조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더 밝은 은하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대일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일조를 보기 위해 몽골의 초원과 같은 곳을 찾아다니한다고 합니다. 은은히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밤하늘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하네요.

●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①

대일조는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가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의 먼지가 대일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고 하였다. 곧 우주 탐사선이 대일조 현상의 원인을 밝힌 것이므로, ①의 설명은 잘못되었다. 대일조 현상을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4~5]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김 박사(여):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단 폐수 방류 사건 이후에 17년간 네 번에 걸친 종합 대책이 마련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돗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여):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도 수돗물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술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누수율도 15%나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보수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 민영화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물 산업 강국이라는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에 물 값이 150%나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회자(남): 박 과장님, 김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과장(남): 민영화할 경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잘 협조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돗물 사업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면, 수질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누수율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4. 상대방 발언의 추리 (정답) ④

여성 토론자(김 박사)의 첫 대화를 보면 상대방, 곧 정책 담당자가 '민영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로 적절한 것은 ④이다.

5. 말하기 방식의 평가 (정답) ②

여성 토론자는 상수도의 시설 가동률이 50%이고 누수율은 15%라는 것,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 이후 물 값이 150% 인상되었다는 것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수도물 사업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 쓰기, 어휘·어법 <<<<

6.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등산 배낭을 꾸리는 방법을 통해 학습 방법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③의 '여러 학습 방법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같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① <보기>의 '배낭에 물건을 배치할 때에는 배낭의 무게가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② '배낭의 무게는 자기 체중의 1/3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벼운 물건은 아래에, 무거운 물건은 위에 넣어야 체감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어려운 공부와 쉬운 공부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 ⑤ '목적지와 여행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목표와 시간을 고려한 학습 계획으로 공부할 내용을 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7.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쓰고자 하는 글은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글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③의 '어린이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라는 내용은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정이다.

8. 조건에 맞는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물안개가 전설처럼 피어오르는 곳'과 '수면 위의 연꽃들은 제 몸을 감춥니다.'를 통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관련짓지 않았다.
- ③ '망부적인 양 서 있습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오백 년 전 이국으로 떠난 이들'에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만, 방문을 권유하는 방식이 강제적이다.
- ⑤ 역사적 사실과 관련짓는 내용이 없다.

9. 글감을 통한 개요의 수정 보완 (정답) ②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한다고 했으므로, 각각의 글감을 분석하여 개요의 보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ㄱ은 독일의 사례로,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사례인 ㄴ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글감을 통해, 나라별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ㄴ에서 우리 나라의 개발 사업자가 왜 꼭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결국 세 개의 글감은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II-2-가. 제도상의 문제'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개요를 보완할 수 있다.

- ① 글감들은 우리 나라의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성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③ 글감의 내용은 감독 소홀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글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글감에서 환경 오염 처리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의 문장은 오히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장을 분석해 보면, '개발로 인해'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의 두 어절 모두와 연결된다. 즉, '개발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와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을 ㉡와 같이 고치면,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따라 ~'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흐름이 된다.

11. 단어의 의미 이해 (정답) ⑤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두 단어로 표현된 것의 의미가 비슷한 한 단어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는 중심 의미의 단어에 '접미사'를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또 하나는 중심 의미의 단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세계 밀었다'는 중심 의미 단어인 '밀다'에 접미사 '-치-'를 결합한 '밀쳤다'로, '몹시 붉었다'는 중심 의미 단어인 '붉다'에 '-디-'라는 연결 어미를 이용한 합성어로 만들어 '붉디붉었다'로 표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의미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서는 '심하게 싸웠다'라는 두 단어를 '싸움질했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 왜냐 하면 '-질'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행동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뜻을 더하므로, '싸움질했다'의 의미는 '싸움이라는 저속한 행위를 했다.'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원래의 문장에 있던 '심하게'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① '크다'에 '-다랗-'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커다랗다'로 바꾸었다.

- ② ‘찾았다’에 ‘되-’라는 접두사가 결합된 ‘되찾았다’로 바꾸었다.
- ③ ‘들었다’에 ‘엿-’이라는 접두사가 결합된 ‘엿들었다’로 바꾸었다.
- ④ ‘디뎠다’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결합된 ‘헛디뎠다’로 바꾸었다.

12.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맞춤법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규정의 이해와 함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의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애’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아니다. 즉 ‘막애’를 ‘마개’로 표기하는 것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은 탐구 내용이다.

- ① ‘떡이’는 어간 ‘떡-’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단어이며 ‘-이’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므로 원형을 밝혀 ‘떡이’로 적는다.
- ② ‘목결이’도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단어이며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 ③ ‘마중’에서 ‘-웅’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④ ‘같이’는 어간의 뜻을 유지하고 있고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읽기 / 문학(장르 복합) <<<<

[13~18]

- (가) 김광균, 「와시등」
 이미지즘 시인인 김광균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국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모더니즘적인 색채가 짙게 느껴진다.
 · 주제 : 현대인들의 고독과 우수
- (나) 김수영, 「사령(死靈)」
 시적 자아의 반성을 통하여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작품이다.
 · 주제 : 지식인의 자기 반성
- (다)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추구하는 삶을 노래한 전체 18수의 시조이다. 제시된 부분은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강호에의 욕망이 상충하는 과정을 노래한, 초반의 다섯 수이다.
 · 주제 : 강호에의 욕망과 임금에 대한 충의의 갈등

13. 작품들간 공통점의 파악 (정답) ⑤

(가)에는 군중 속에 있는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어 있다. 또 (다)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강호에 대한 욕망이 충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14.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1연의 내용이 마지막 연에서 반복되면서 삶의 지표가 없는 현재를 공허한 심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나)에서는 1연을 마지막 연에서 다시 반복함으로써 자기 반성적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1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③은 일몰(日沒)을 표현한 구절이다.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하여 화자가 느끼고 있는 쓸쓸함과 공허함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③은 상승의 이미지가 아닌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16.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보기>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시적 자아가 표현하는 세계에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다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 시어를 살펴보면, ㉠은 단순한 풍경 제시에 그치고 있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2연의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말한다. 즉, 이상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인 것이다.

18. 자료를 통한 작품의 감상 (정답) ③

(다)는 충효에 대한 욕망과 강호에 대한 욕망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제2수에는 충효를 성취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고, 제3수에는 강호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임천(林泉)’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난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임천(林泉)은 ‘수풀과 샘’이라는 뜻으로 ‘강호(江湖)’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 읽기 / 비문학(기술) <<<<

[19~22]

축매 설계 방법

19. 미루어 알기

정답 ④

마지막 문단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위해 다양한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촉매 설계 방법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돌(촉매)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촉매 설계 방법이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적절한 사례 찾기

정답 ⑤

회귀 경로를 통한 분석에서 '회귀'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옴을 뜻한다. 따라서 ①의 방법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그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시작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⑤에서 코치의 조언을 받는 것은 처음으로 되돌아와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귀 경로를 통한 오류 수정이라 볼 수 있다.

21. 실제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보기>의 조건을 촉매 설계법에 적용해 보면 목표치는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7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크롬 조합-1'의 염화수소 전환율은 65%라고 하였다. 이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이다. 2문단을 보면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실험에서는 '크롬 조합-1'을 다른 촉매 조합으로 변경해야 한다.

22. 문맥적 의미에 따른 유의어 찾기

정답 ①

수재민을 도왔다에서 '돕다'는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로는 '구호(救護)하다'가 있다. '구호'는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명(救命)'은 '사람의 목숨을 구함.'이라는 뜻으로 ①의 문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 읽기 / 비문학(인문) <<<<

[23~26]

태조실록

23. 세부 내용의 확인

정답 ①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태조의 역사 기록 열람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쓴 글쓴이이다. 태조가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역사 기록 열람을 요구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글 전체에서 태조가 역사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3문단에서 을해년에 태조가 역사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다가 그 명을 거두었다고 했다.
- ④ 3문단의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⑤ 이 글을 쓴 의도 자체가 태조가 또 다시 역사 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자 함이다.

24.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임금이 역사 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사관이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①), 당 태종이 역사 기록을 열람 하였던 선례를 들어 태조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②). 또한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이 되므로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 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하고 있다(④). 그리고 태조가 역사 기록을 열람하려 하였다가 그 명을 거둔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③).

25. 반론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태조가 역사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보고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는 ㉠의 추정에 대해서는 옛날의 성현이 남긴 기록만 보더라도 반성하기에 충분하다는 르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역사 기록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의 추정에 대해서는 사관은 소문이나 억측, 터무니없는 일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르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①

①의 '미치다'는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이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읽기 / 문학(고전 소설) <<<<

[27~30]

김만중, 「사씨남정기」

27. 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 ②

이 글은 주로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다.

- ③ 제시된 부분은 두 부인과 유 한림, 사씨와 두 부인, 유 한림과 교씨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뒤바뀌어 진행된다거나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⑤ 마지막의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 부분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구절의 구체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에서 의복도 이기지 못할 만큼 몸이 너무 초췌해졌다는 것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는 몸이 초췌해졌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① 유 한림이 초대한 잔치에서 두 부인이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지은 것은 사씨 부인이 곤경에 처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② 두 부인은 유 한림에게 사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④ 이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듯했다는 것은 사씨가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사씨는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할 수 없다고 하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29. 내용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뒤에 이어지는 ‘자신이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씨의 말로 볼 때, ㉠은 유 한림이 교씨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교씨의 사람됨을 잘 알아보았어야 한다는 ④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0.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①

㉠은 교씨가 속으로는 본처인 사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 읽기 / 비문학(언어) <<<<

[31~33]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이 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이용하여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눈 다음,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국어 음절에 적용해 보면, 국어는 모음이 음절의 핵이 되며,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31. 글의 성격과 내용 이해 (정답) ①

이 글은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 0도, 마찰음과 파찰음 1도, 비음 2도, 유음 3도, 고모음 4도, 중모음 5도, 저모음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붙여 나가면 ‘>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되는데, 이를 통해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 ③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끝말잇기 게임’이나 시에서 운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음절 초에는 ‘ㅇ[ŋ]’이 제한되고,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만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어에서 1음절인 단어가 국어에서는 3음절이 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32.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③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되는데,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다. 즉 개구도가 큰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작은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은 발음의 최소 단위가 된다.

33. 세부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한 부등호의 모양을 보고 같은 모양을 가진 음절을 찾는 문제이다. 부등호의 배열이 ‘<><>’라고 하였으므로, 우선 두 부등호 사이의 음절 경계를 보아 2음절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절의 구조는 ‘자음+모음’인 음절과 ‘자음+

모음+자음'인 음절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음절은 ①의 '가족'이다.

>>>> 읽기 / 비문학(과학) <<<<

[34~36]

하비의 '피의 순환 이론'

하비의 '피 순환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피 순환 이론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하비의 가설 검증 방법을 실험 과정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34. 세부 내용의 확인 정답 ①

마지막 문단에서 '피 순환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생리학이 '피 순환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피 순환 이론'이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5. 실험 과정의 추리 정답 ③

3문단에서, 하비의 실험은 동맥과 정맥을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손이 차가워졌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기>를 살펴보면, 손은 '각 기관'에 해당하므로 하비는 각 기관의 좌우인 ㉠과 ㉡을 차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특정 관점에 따른 이해 정답 ④

베살리우스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당시 의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폐순환과 심실 사이의 격막에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갈레노스의 이론에 끼워맞추었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이다.

>>>> 읽기 / 문학(극) <<<<

[37~39]

천승세, 「만선(滿船)」

37.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이 장면은 선주(船主)인 임제순에게 잡은 고기를 다 빼앗긴 곰치 가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제순과 곰치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언어 유희는 사용되지 않았다.

38. 인물의 역할과 기능의 이해 정답 ⑤

- ㉠ 만선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도삼, 성삼, 구포덕, 곰치 등에게, 잡은 고기를 임제순에게 다 빼앗겼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이 연철이다.
- ㉡ 고기를 다 빼앗겼다는 연철의 말은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던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 ㉢ 연철은 '고기를 다 빼앗겼다', '빛을 가리고도 빛이 이만 원이나 남았다', '고기를 빼앗아 간 사람은 임제순이다'라는 정보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 연철의 "취잇!" 하는 대사는, 무대에 막 올라오고 있는 임제순이 고기를 빼앗아 간 사람임을 알게 해 준다.
- ㉤ 배를 빌려 주지 않겠다는 임제순의 말에 연철이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 하고 놀라 대꾸한다. 이로 보아, 연철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39. 상황에 따른 연기 지시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은, 풀이 죽은 연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놀리려는 의도에서 억지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곰치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연철을 다그치는 행동이다. 여기에 상대방인 연철을 질책하려는 의도는 들어 있지 않다.

>>>> 읽기 / 비문학(예술) <<<<

[40~43]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의 미학적 특징과 의미

40.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④

- ① 4문단에 보쟁과 같이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보쟁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 그들 그림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았다.
- ③ 보쟁의 그림에 사용된 소재들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 ④ 1문단에서,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시인 계급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을 가졌다고 하였다.

41. 관점에 따른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보기>에서는 17세기의 정물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쟁의 그림을 이해하면 된다. 보쟁의 그림이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대한 경계'를 암시한다는 것을 '내재적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그림 속 소재들에 대한 사실적 읽기와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 해석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42. 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⑤

㉠가 들어 있는 문단과 ㉡를 함께 보면, 보쟁의 그림에서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정물화에 쓰인 물건들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 곧 촉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고 하였다. 곧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적인 빛을 사용하여 촉각과 시각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답지들 중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이와 유사한 것은 ⑤이다. 여기서 '따뜻한 감촉의 양탄자'는 촉각과, '다양한 색채의 과일, 번쩍이는 장식물의 조화'는 시각과 관련된다.

43. 오감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파악 (정답) ①

오감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가리킨다. <보기>에서 ‘물랑물랑(매우 또는 여기저기가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조금 무른 듯한 느낌)’은 촉각, ‘물썩물썩(코를 푹 찌르도록 매우 심한 냄새가 자꾸 나는 모양)’은 후각, ‘사각사각(벼, 보리, 밀 따위를 잇따라 벨 때 나는 소리)’은 청각, ‘썩근썩근(고르지 아니하고 가쁘게 자꾸 숨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은 청각 및 시각, ‘파릇파릇(군데군데 파르스름한 모양)’은 시각과 연관된다. 이로 보아, <보기>의 어휘들은 ‘미각’과 연관이 없다.

>>>> 읽기 / 비문학(사회) <<<<

[44~46]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44. 핵심 내용의 확인 (정답) ④

이 글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사적 부문에 적용되는 요소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글쓴이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45. 전제의 추리 (정답) ⑤

㉠은 수익률이 높은 공공 부문은 민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낮은 수익률로 인해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46.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②

할인율이란 이자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으면 그만큼 미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며, 할인율이 낮으면 그만큼 미래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이를 <보기>의 ㉠에 적용하면 놀이동산 사업을 찬성한다면 미래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고 싶어할 것이고, 반대한다면 미래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고 싶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의 경우,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건설하려는 놀이동산 사업에 반대할 것이므로, 미래의 가치는 낮게 산정하고 현재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래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려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할 것이므로, 미래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미래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기 위해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사업에 찬성할 것이므로, 미래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기 위해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에 반대할 것이므로, 미래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것이다.

>>>> 읽기 / 문학(현대 소설) <<<<

[47~50]

최일남, 「흐르는 북」

47.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의 파악 (정답) ②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가 각 등장 인물들에 대해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 노인의 시각에서 그의 심리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48.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뒷부분에 나오는 ‘집’에서 민 노인은 며느리의 질책을 받는다. 며느리는, 민 노인이 아이들과 어울려 북을 친 것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이 며느리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

49. 인물의 심리와 태도 (정답) ⑤

민 노인은 자신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할문에 부아가 치솟는다. 따라서 민 노인의 말인 ㉠을 상대방(며느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0. 인물의 예술관 파악 (정답) ②

민 노인은 북을 치러 가는 날에 아무 옷이나 걸칠 수 없고 반드시 모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북 가락이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적막감도 느낀다. 이로 보아, 민 노인은 자신이 치는 북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